

一石佛 바로 옆에 倒置된채 原形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上基甲石만露
出되고 그 以下는 埋沒되어 調査할 法이 없었다. 屋蓋三石과 屋身二
石을 調査할 수 있었는데 椽柱一柱가 刻出된 基壇部面石이 있음과
上甲石을 보아 이塔은 二層基壇임을 알 수 있다. 上甲石上面에는 佛龕과
角形의 받침이 있으며 塔身에는 兩隅柱가 있다. 各屋蓋의 받침은 一、
二層은 四段씩이고 三層이 三段이며 四隅의 轉角에는 風磬을 달았던
痕跡으로 圓孔이 있다. 落水面은 急하지 않으며 上面에는 二段의 받
침이 있어 그 위 身石을 받고 있다. 實測値는(cm)……

上甲石 一邊長 一三三 一層塔身 高五〇

厚七·五 " 幅五一·五

二層塔身 高一五·五 一層塔身 長八九

" 幅四八 二 " 七六

三層塔身 長六二 上基面石 高五七·五 幅七六이다. 이塔에 關한 記錄
은 아직 보지 못하였는데 洞民의 말에 依하면 日帝時 畚中에서 出土되
어 이곳 佛像 옆에 塔材를 收拾해 놓은 것이라 한다. 이 石塔의 年代는
屋蓋나 基壇石手法으로 보아 麗初로 推定된다.

三、岩窟과 石佛

於仁洞部落에서 約一km쯤 뒷산을 올라가면 山腹에 南向하여 自然岩
窟이 있고 그 안에 坐像一軀를 奉安하였다. 記錄에 依하면 十三軀(註)
의 石佛이 있었다고 하는데 現在는 一軀뿐으로 그것도 他處에서 移安
된 것이라 한다. 素髮로 頭部와 相好에는 黑白粉을 彩色했으며 折損
된 것을 「세멘트」로 補強한 것이다. 右肩偏袒의 法衣가 兩腕에 걸쳐 무
릎을 덮었으며 左手에는 持物이 있다. 胴體에는 全身에 黃色을 彩色하
였다. 衣文이나 各部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窟
入口에는 「窟岩寺」라는 墨書가 있으며 兩 옆은 돌담을 쌓고 中央에 木
材로 門을 架設하여 雜人出入을 禁止시키고 가끔 巫堂들이 모여 佛供
客들만을 맞는다고 한다. 窟內는 人工을 加한 곳도 있으며 佛壇은 없
는데 自然水가 湧出되어 筆者가 訪問한 三伏의 무더위에는 一盃二盃
가 藥水와도 같이 느껴졌다.

實測値는(cm)像 高五七 肩幅三三 膝高五一 胸幅一八 ※窟入口 高約三
m 窟內 高約七m 窟入口 幅約七m 窟內徑約八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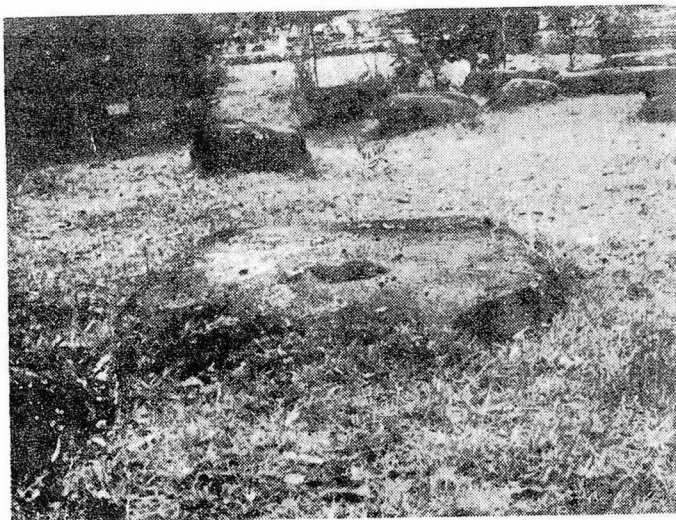
〔註〕「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二九頁에 「於仁洞部落의 西北方約六町餘山
腹岩窟內에 있으며 座像인데 高約一尺乃至一尺五寸으로 十三體가 있
는中 三體는 頸部折損 二體는 胴體뿐이며 其外는 完全하다」라 있다.

南原 實相寺의 一建物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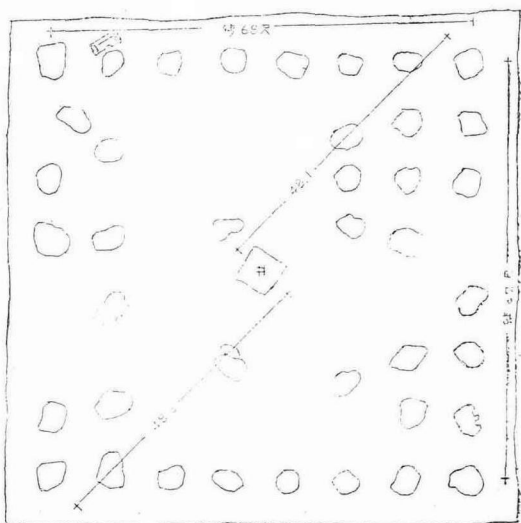
崔 容 完

羅代에 유명한 證
覺大師에 依하여 다
스려진 實相寺 境內
에 木塔址로 생각되
는 一建物遺址를 찾
아볼 수 있었다.

지난해 七月 十三
日 서울大學校 尹張
燮先生과 延世大學
校 李慶會氏와 同行
하여 이곳에 이르렀
을 때 中門址의 東
南에 建物址를 發見
하고 調査하였다.
中央에는 一邊 약 五
一六尺의 正方形에
近似한 平石이 四隅
를 東西南北으로 하



平面實測圖 1/600



自然石이며 位置變動이 심하여 原形을 알기에는 많은 調査와 研究를 要 하나 一見에 나타나는 點을 들면 正四方七間的 平面으로 規模는 慶州 皇龍寺址의 九層塔址보다 조금 작으나 거의 對等하다. 實測한 結果를 概算하면 〇・九六強 曲尺을 基準單位尺으로 每間十尺의 等間隔으로 一面 七十尺으로 大스린듯 하다. 遺址西北隅에 그림에서와 같은 蓋石 版이 있는데 一邊六・五五尺 두께 一・〇四尺으로 建物の 部材였으리라 생각된다. 正南向하여 南門、中門、雙塔、石燈、金堂을 整然하게 다스린 當時의 伽藍內에 南門址와 中門址사이의 東便에 基壇部는 약 一m 높이의 平面正方形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의 伽藍의 南北中心軸에 對稱되는 位置에는 어떤 建物の 遺跡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부근에서 「大天」이라 銘文이 반복된 瓦片(적새)이 발견되었고 마을사람들은 이곳에 丈六殿이 있었다고 전한다. 建物址의 位置와 心礎石이安置된 方法 그리고 自然石인 礎石 등에서 綜合해 보면 原來의 伽藍과는 別途로 後代에 다스려진 듯한 느낌이 많으며 推測하여 高麗中葉에 開京에

여 建物の 對方角方向으로 놓였는데 다 른 礎石보다 조금 낮게安置되었고 平面으로 가공된 上面의 中央에 사진과 같은 正方形의 구멍(舍利孔?)이 있어 建物の 方向과 一致한다. 깊이 〇・九七尺의 이 구멍은 폭과 깊이가 거의 같으며 開口部가 조금 좁은듯 하다. 다 른 礎石은 巨大한

서 木塔등 巨大한 伽藍造營이 盛行하던 餘勢가 이곳까지 미쳐서 다스려졌던 것이 아닐가 하나 앞으로의 調査가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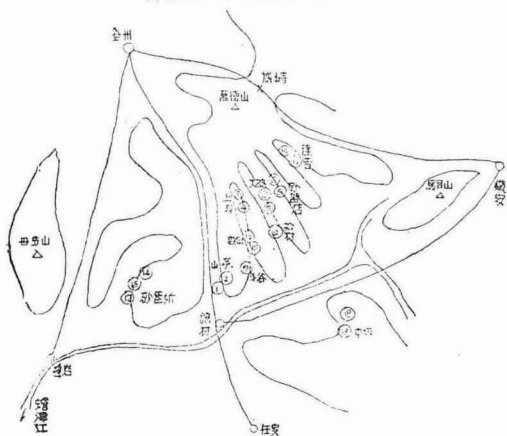
資料

◎ 萬德山谷의 陶窯址群

全 永 來

全羅北道 全州 鎮安 靈岩間을 貫는 三角地帶內의 萬德山 여러 溪谷에 는 麗時代末期靑磁로부터 李朝中期白磁에 이르는 多數의 陶窯址가 分布되어 있다.

萬德山谷陶窯址分布略圖



靑磁、粉靑磁器의 印花文과 귀얄粉彩、白磁 등을 包含한 이 窯址群은 거의 破壞되지 않은채로 남아 있어서 매우 注目되 었으며 筆者가 踏査한 十 九個所中에는 靑磁가 二 個所粉靑系 九個所、白磁 가 八個所였는데 便宜上 다음 分布略圖와 같이 番 號를 부쳐서 整理해본 바 그 內容은 別表와 같았 다.